

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 안보

- 탈근대 사회에서의 안보와 치안의 융합현상에 대한 이해 -

윤민우* · 김은영**

〈요 약〉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도래와 일상화라는 증강 현실의 확대,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인간과 물품, 그리고 문화의 빠른 이동 등의 결과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일상의 혁명적인 변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범죄나 전쟁 등의 폭력 사용에서의 혁명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 걸쳐 다른 차원에서 각각 존재해 왔던 여러 다양한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서 이러한 여러 다른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라는 형태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개개인의 안전과 국가적 단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도록 조건지우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 서로 얽혀 있으며 각각의 개별 안보 위협들의 총합을 함께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질 때 문제의 근원적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념인 융합안보라는 개념은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에 대한 통합적 네트워크적 응전의 방식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융합안보는 기존의 국가안보와 치안이라는 분절적 시각을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치안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정보기관, 군, 경찰, 검찰, 소방, 민간 경비 등의 각 영역들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오늘날 다차원 안보위협이 던지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응전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개념적 노력이다.

그와 함께 이 논문은 융합안보와 관련하여 해외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통합적 네트워크적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글쓰이는 지난 10년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지를 돌면서 관찰하였던 사항들과 여러 교육, 훈련과 세미나, 콘퍼런스, 그리고 개인적 접촉 등의 기회를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제1저자)

**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범죄수사학과 조교수(교신저자)

통해 가졌던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와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시도되어오고 있는 오늘날의 보다 복잡한 안보위협들에 대한 융합적 대응방안들, 즉 기관의 네트워크적 협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교류 등을 소개할 것이다.

주제어 : 다차원 안보 위협, 융합안보, 안보, 치안, 테러, 범죄, 전쟁

목 차
I. 머리말
II. 다차원 안보위협과 국가라는 보호자의 실존적 위기
III.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
IV. 융합안보의 실험들
V. 맺음말

I. 머리말

“탈북자나 조선족, 또는 중국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로 신분을 위장한 북한의 특수전 요원들이 안산 단원 지역 등 국내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에 숨어들어 비밀 지하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들은 북한 지도부의 명령에 따라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일대의 방송사와 언론사와 호텔 등지를 5-6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무장 총기 공격과 폭탄테러 공격 등을 병행하며 무차별로 인명을 살해하고 소요를 일으키며 서울 일대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다. 이들이 공격에 사용한 무기는 필리핀 조직범죄나 중국 조직범죄 등의 범죄조직이 해외로부터 밀수입한 무기류나 국내에서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사제 폭발물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국내에서 획득한 도난당한 스마트폰이나 노숙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전 중 지휘, 통제, 그리고 교신 등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통신은 인터넷 상에서 익명 IP 주소를 사용한 형태로 웹 포럼이나 트위터 등의 방식으로 서로 교신하며 작전을 서로의 조율하였으므로 국내의 대테러 전술부대와 정보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이들은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친절한 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설정한 공격 대상 목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공격루트와 퇴로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사이

버 공격이 감행되었고 국내의 정부기관과 민간 기관들의 효과적인 교신이 어려워졌으며 119 대응 체계의 혼란과, 전기 공급, 병원 시스템 운영, 교통통제 등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다. 동시에 인터넷 상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자들에 의해 시도된 수많은 가짜 신고들과 정보들, 그리고 근거 없는 루머들이 서울시내 전체의 패닉과 공포를 만들어 냈다. 국내 언론들과 외신은 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세계에 비친 서울의 모습은 끔찍한 혼란 그 자체였다. 국내의 주식시장은 패닉에 비쳤고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2차 피해가 수반 되었다.”

위에 서술된 내용은 글쓴이가 가상으로 그려본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감행한다면”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는 며칠 전 북한의 방송에서 경고한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언론사와 MBC, YTN 등의 방송사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전혀 새로운 방식의 공격” 위협에 대한 글쓴이의 하나의 상상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고 있는 상황들은 지난 2008년 인디아 뭍바 이 테러 때 파키스탄 테러조직인 라쉬카르 에 타이바가 채택했던 전술과 불과 지난 달(2012년 4월)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하카니 네트워크가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대사관을 상대로 채택했던 공격 전술의 방식이다. 이들 방식들은 그 실제 피해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상당한 수준의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해당지역이 심각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줌으로 해서 공격을 주도한 테러세력에게 상당한 국제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었다(DIA요원과의 인터뷰). 이러한 새로운 스왐(swarm)전략¹⁾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선택 대안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나타나는 스왐전략과 같은 새로운 테러 공격 방식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세계화의 확대로 나타나는 파괴양식의 변환이다. 이 두 요소의 전장 환경에의 투입은 힘의 증대(force-multiplier)로 작용하여 기존의 테러나 폭력범죄와 같은 낮은 폭력 수준의 공격의 파괴력을 우려할만한 정도로 증폭시켰다. 또한 사이버 공간과 세계화라는 두 요인은 전장 환경의 변환을

1) 작은 무리들이 특정한 지역 전체에 대량으로 몰려들어 소요를 일으킴으로 해서 공격대상이 되는 주체들에게 자신들의 지역이 압도적인 무력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공포를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인 전략적 이득을 이끌어내는 전투방식. 벌떼 전략이라고도 불리며 12-3세기 몽고군이 러시아와 동유럽을 공격할 때,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정벌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가져와 기존의 민족국가로 짜였던 안보와 치안 간의 전통적 이분법의 질서를 허물어 뜨리고 안보와 치안의 융합, 전쟁과 범죄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실존적, 구성주의적, 그리고 탈근대적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확장이 가져온 중대한 변환은 기존의 땅, 바다, 하늘에서 전개되던 3차원 전장 환경에 사이버라는 또 하나의 공간이 추가됨으로서 키네틱(kinetic)²⁾ 타격을 지원하는 여러 측면들이 훨씬 값싸고 빠르게 실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장의 승패가 적의 무게 중심(center of gravity)에 대한 타격을 통해 달성된다면 키네틱(kinetic) 타격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가능한 온전한 상태로 무게 중심의 타격시점까지 도달하게 하는 모든 비키네틱(non-kinetic)³⁾ 활동들-정보, 정훈, 통신, 보급, 군수, 수송, 의료, 병참 등을 포함하는-은 전장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이러한 비키네틱(non-kinetic) 활동들을 보다 값싸고,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은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비국가 행위자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공격 의도자들에게 제한된 키네틱(kinetic) 파괴력으로 적의 무게중심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게끔 허락한다.

한편 세계화의 요인은 이주자와 이주 문화의 이동을 결과 시켰다. 이로 인해 기존의 국경에 기초한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어떤 특정 국가의 국경 내에 마치 섬과 같은 형태의 문화적 언어적 경계로 구축된 국가의 공권력이 실존적 의미에서 행사되지 않는 무정부 지역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지역들은 외국계 이주 집단들이 만들어 내는 거주 밀집 지역을 의미하며 이 지역들에서 국가의 실질적 공권력의 행사가 차단됨으로서 하나의 무정부 공간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은 안보적 의미에서 주요한 위험지역이 된다. 이는 이러한 지역들이 주로 범죄조직이나 테러조직과 같은 폭력적이며 범죄적인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장악되는 경향이 있으며 무기밀매, 돈세탁, 문서위조, 마약거래, 도박 등의 각종 조직범죄의 온상이 되어 테러 등의 비전통적 키네틱(kinetic) 파괴력이 해당 숙주 국가의 무게 중심을 타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공격시작점으로서 그리고 우호적인 공격준비지점으로서 기능하는 측

2) 키네틱이란 실제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물리적 폭력 자체를 의미한다. 군사부문에서 이러한 물리적 폭력은 적을 타격하는 병력과 무기로 결합된 전투력 자체를 의미한다.

3) 비키네틱은 실제 물리적 폭력 자체 또는 전투력 자체를 의미하는 키네틱 부문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폭력 자체 이외의 모든 부문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키네틱의 예로는 키네틱 부문을 수송하거나 보급하거나 정보를 지원하거나 통신 부문이나 의료적 지원, 무기의 조달과 정비 등과 관련된 것들을 들 수 있다.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안보와 치안, 범죄와 전쟁이 융합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방식의 안보위협들의 실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와 관련해서 해외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안보 대응 방안들에 대해 소개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진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등지를 방문하면서 관찰하였던 사항들과 여러 교육, 훈련과 세미나, 콘퍼런스, 그리고 개인적 접촉 등의 기회를 통해 가졌던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 그리고 각종 안보관련 씽크탱크와 각국 정부의 기관 보고서와 전문적 논문, 그리고 미디어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관찰되고 있는 오늘날의 보다 복잡한 안보위협들의 현실과 이에 대한 각국과 국제기구 등의 융합적 대응방안들을 서술할 것이다.

이 글의 서술을 위해 참고로 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유엔 마약 범죄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과 미국의 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와 DOD(Department of Defense), 이스라엘의 사빅⁴⁾ 등의 기관 보고서, 그리고 글쓴이가 직접 참여 관찰한 사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편의상 이 논문의 참고문헌 부분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II. 다차원 안보위협과 국가라는 보호자의 실존적 위기

막스 베버가 지적한 바처럼 근대적 삶에 대한 문제의 접근 방식은 문제에 대한 분절적 접근과 관료적 해결 방식이다. 이를 통해 문제는 분절적이고 관료적인 역할 분담에 적합한 방식으로 인식되어 처리되어 왔다. 이는 안보위협을 접근하는 방식도 그러한 것이었다. 국가의 핵심기능인 보호자로서의 기능은 전통적 국가 안보와 치안의 문제로 분절적으로 그리고 관료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안보의 위협은 역시 그러한 관료적 분절적 접근방식에 적합하게 나누어지고 분절적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탈근대로의 이행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식이 어울리지 않는 여러 회색 지대를 만들어 냈다. 사이버 공간의 등장과 세계화의 심화는 전통적인 치안의 문제의 심각성을 증폭시켰으며 이는 전통적인 치안의 문제로 다루기에는 더욱 심각한

4) 이스라엘의 군 정보기관이다. 미국의 DIA나 우리나라의 정보사령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정도의 문제들을 만들어냈다. 한편 국경이라는 족쇄에 의해 제약된 국가의 치안능력은 세계화와 사이버 세상에 의해 자유로워진 증폭된 치안의 위협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따라가면서 치안적 접근은 테러와 조직범죄, 초국가 범죄, 사이버 범죄 등과 같은 치안의 문제의 스펙트럼에서 보다 거시적인 방향으로 상위에 있는 보다 심각한 위협들을 쫓아 올라가면서 회색지대에 도달했다.

한편 국가안보라는 안보/치안의 스펙트럼의 다른 쪽 극단에 있던 국가의 안보대응은 기존의 국가안보 문제의 핵심인 정규전을 통한 안보의 위협에서 보다 비전통적인 여러 위협들로 영역을 넓혀왔다. 비정규전, 게릴라전, 마약전쟁, 무장항쟁, 그리고 테러와 초국가 조직범죄 등이 가져오는 국가에 대한 실존적 위협과 그 국가 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 위협 등에 대해 보다 폭 넓은 관심이 대두되게 된다. 이는 인간안보⁵⁾라는 이름으로 국제정치 또는 국제안보학에서 등장하게 된다(Buzan & Hensen, 2009). 이러한 문제의식은 탈근대 사회에 나타나는 국가단위 내에 실재하는 개개인의 사람들에 대한 실존적인 안보위협⁶⁾과 이에 대해 제대로 보호 기능을 작동할 수 없는 전통적인 국가의 안보 메카니즘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국가안보라는 다른 극단에서 출발하여 안보/치안의 스펙트럼을 미시적인 방향으로 따라 내려오면서 회색지대⁷⁾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회색지대는 근대적인 의미로 짜인 국가의 안보와 치안의 작동방식의 딜레마와 분절성과 관료적 경직성,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의 무기력성에서 탄생한 공백지대이다. 여기에서 개개인의 인간은 당연히 받아야 될 국가로부터의 보호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고 실질적인 안보위협 앞에 노출되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서

5) 인간안보라는 개념은 국제정치학 또는 국제안보학 부문에서 탈냉전기에 대두되었다. 인간안보는 Human Security 개념을 한글로 옮긴 것이다. 전통적인 안보가 국가 공동체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지칭하는 것에 대비하여 국가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개개인의 삶과 행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자원, 환경 문제, 인종청소, 인신매매, 마약, 테러와 같은 위협들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제기되었다.

6) 실존적인 안보의 위협이란 구체적인 위협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 가와는 독립적으로 실제로 개개인의 삶과 안녕에 위협이 되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이란 뜻을 가진다. 여기서 실존적이라는 의미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강조하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의미에서의 실존을 의미한다.

7) 회색지대란 군사적 위협이나 전쟁 같이 국가가 군사적 수단에 의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일반 범죄나 소요, 또는 질서의 혼란과 같이 국가의 법집행적 수단에 의해서도 대응하기가 곤란한 안보 위협의 문제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주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사이버테러, 테러리즘, 초국가 범죄 등이다. 이들 문제들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기에는 위협의 수준이 경미하거나 국제법상의 전쟁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집행적 수단으로 대응하기에는 위협의 수준이 너무 심각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특성들을 가진다.

제기되는 다차원 안보는 이러한 실존적 인식에서 비롯되며 전쟁과 범죄가, 안보와 치안이 혼재되고 뒤섞이는 방식으로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전개되는 실존적 안보의 위협을 의미한다.

실존적 의미에서 다차원 안보위협은 한 개인이 여러 차원에서 받게 되는 폭력적 공격으로부터의 위협이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자신의 거주지역내에 존재하는 조직폭력 집단이나 범죄조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폭력적이며 범죄적인 공격과 약탈 등에서부터 테러세력이나 무장 항쟁 세력, 군벌이나 마약 카르텔과 같은 사적인 폭력집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존적 안보위협 그리고 그보다 상위의 레벨에서는 국제법상으로 인정되는 교전단체나 준 국가단체 또는 국가 행위자로부터 받게 되는 테러나 무장공격, 비정규전, 저강도 전쟁, 정규전, 그리고 핵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등의 여러 차원에 걸친 폭력적 위협 등을 통합하여 지칭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다차원에 걸친 안보위협이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오늘날 들어서 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장 환경의 변환에 따른 회색지대의 광범위한 등장 때문이다. 이러한 회색지대의 등장으로 인해 다차원 안보위협에 대한 기존의 분절적·관료적 접근에서 통합적·네트워크 적인 접근으로의 패러다임 변환이 오늘날에 요구된다. 따라서 다차원 안보라는 개념이 보다 실존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융합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날 보이는 국가라는 행위자와 그 속에 실재하는 개개인의 실존적 안보위기는 이 회색지대에서 국가라는 안보의 보호자가 그것이 국가안보이건 치안이건 어느 것도 실효적인 의미에서 제대로 작동하는데 한계를 가진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사이버 공간의 실효적 공간으로서의 등장과 세계화의 확산에 따른 전지구적 환경에서의 통합과 국경 없는 사회의 등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소말리아, 멕시코,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실패한 국가의 등장이 그렇지 않은 정상국가들에 미치는 초국가 범죄의 위협들(Cook, 2008; Giustozzi & Reuter, 2011; Hastings, 2009; Lacey, 2010; Pirate attacks increase worldwide, CNN, 2007; Rafiq, 2008),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전개되는 보이스 피싱과 인신매매, 사이버 테러, 돈세탁과 사이버 도박 등의 국경을 초월하는 초국가 범죄위협들과 테러위협들(Bortner, 1996; Counter-Terrorism Implementation Task Force(CITTF), 2011; Schepp, 2001;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2), 그리고 한 국가 내부에서 형성된 외국계 이주민들이 형성하는 문화적-언어적 장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 때

문에 한 국가 내에서 해당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 내에서 성장하는 극단주의 테러리즘과 조직범죄와 초국가범죄의 위협들은(Charles von Denkowski 인터뷰, 안산 단원 경찰서 근무 경찰관 인터뷰, 출입국 관리국 담당관 인터뷰) 전통적인 국가의 공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648년 베스트팔렌 체제이후에 당연시 된 국가의 안보와 치안의 근대적이며 전통적인 작동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들며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Ⅲ.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

오늘날 나타나는 안보의 딜레마는 다차원으로 전개되는 안보의 위협이 서로 전략적으로 결합되고 다시 이 결합된 총합적인 힘이 국가 단위 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실존적인 심각한 안보의 위협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은 그것이 주로 회색지대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두 가지의 보호기능인 국가안보와 치안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위협들은 국가의 보호기능을 우회하여(by-pass) 국가 내의 사람들에게 직접 위협을 가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회색지대로부터의 위협들에서 드러나는 국가의 무기력성은 다시 해당 국가 자체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나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 국가 체제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Terrorism Prevention Branch 1, 2차 회의 주요 논의 내용).

다차원 안보위협을 몇 가지의 차원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낮은 차원에서는 해당 개인의 일상 삶에 직접 위협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위협이다. 여기에는 보이스 피싱, 마약 거래, 인신 매매, 납치, 협박 등과 같은 사이버 범죄이거나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범죄로부터의 위협이다. 그 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다음차원의 안보 위협을 중간 차원의 위협으로 설정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테러리즘, 해적활동, 초국가적 마약 및 무기 밀거래 등과 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는 폭력 또는 범죄의 위협이 해당된다. 이 중간 차원의 안보 위협은 낮은 수준의 안보 위협이 사적인 개인을 직접 위협하고 지역 사회나 국가 등에 대해서는 그 직접적인

위협이 크지 않은데 비해 이 중간 차원의 안보 위협은 지역사회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위협이 전개된다. 한편 중간 차원보다 더 거시적인 안보의 위협은 알 카에다 등과 같이 전 세계적 규모에서 작동하는 글로벌 테러리즘이나 국가에 대한 무장 항쟁, 저항도 전쟁, 그리고 정규전을 포함하는 국제법상 전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상태이다. 이 경우 국가 전체에 대한 안보위협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종류의 안보 위협을 높은 차원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더 거시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면 전 지구적 수준에서 안보의 위협이 걸리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핵무기가 포함되고 여러 국가가 연루되는 총력전쟁과 심각한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등과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안보위협이 문제가 된다. 이를 글로벌 차원의 안보 위협이라 부를 수 있다.

오늘날 다차원 안보위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회색시대라는 뉘앙스를 통해 이 여러 차원의 안보위협들이 전략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총합적인 힘으로 증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이버 공간 상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관심과 폭탄제조 방법이나 지역적 차원에서의 테러활동에 대한 관심은 알 카에다가 추구하는 글로벌 테러 전략과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Terrorism Prevention Branch 1, 2차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또한 북한이나 이란 등이 추진하는 핵무기 개발은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무기불법거래 시장과 돈세탁 메카니즘과 결합하여 핵 테러리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방사능 오염이라는 환경재앙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이스라엘 사막 요원과의 인터뷰; 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 Seminar; Joscelyn, 2012; Wyler & Nanto, 2008). 또 2004년의 스페인 마드리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한 다이내믹 절도를 통해 돈을 벌려고 했던 범죄자들과 도난당한 다이내믹을 사들여 열차폭탄테러를 시도했던 살라피 테러세력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우려스러운 결과도 목격할 수 있다(윤민우, 2010, p.151). 최근 들어서는 조직 범죄세력과 테러세력 또는 무장반군 세력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다차원적 안보위협의 결합사례를 더욱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목격되는 밀수 조직과 하마스의 결합사례(이스라엘 사막 요원과의 인터뷰; 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 Seminar),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타나는 마약 거래조직과 파슈툰 부족집단, 그리고 탈레반 등의 결합사례(Cassara & Jorisch, 2009), 나이지리아에서

목격되는 마약거래단체와 보코하람, 그리고 알카에다의 결합사례(Зубов, 2012, p.27; Крючков, 2012; Самохоткин, 2012),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국경지역에서 나타나는 테러집단과 돈 세탁, 무기밀매, 마약거래, 해적 행위 등의 초국가 범죄와의 결합 사례(Abbott, 2004), 이라크에서 보여 지는 인질 납치 범죄 네트워크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무장 반군들 간의 결합사례(Ghosh, 2006, pp. 44-48; John P. Williams와의 인터뷰). 국제범죄조직과 알 카에다 테러세력의 결합사례(Wannenburg, 2003)등은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들은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테러집단은 범죄세력으로부터 무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거나 테러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범죄세력은 테러집단이 야기하는 정치적 혼란과 이로 인한 국가의 강제력 약화로 인해 자신들의 범죄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차원의 안보위협이 결합하는 또 다른 사례는 자연자원, 동, 식물, 장기, 핵물질 밀거래 등의 초국가적 범죄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만들어 내는 글로벌 차원의 안보위협인 환경오염, 방사능 오염, 자원고갈, 보건문제 등이 될 것이다. 시베리아나 아프리카 또는 브라질 삼림지역에서 희귀 동식물이나 삼림자원들이 범죄세력들에 의해 무차별하게 고갈되는 사례와 핵물질 밀거래가 가져올 수 있는 재앙들, 그리고 장기불법 적출과 이식수술 등이 가져올 수 있는 보건상의 문제와 전염병 확산의 문제 등은 다차원적으로 결합되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의 다차원 안보위협의 결합이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일 것이다(Naim, 2005).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전개되는 사이버 도박과 해킹, 디도스 공격과 보이스 피싱, 돈 세탁 등의 문제는 현실 공간에서의 테러와 조직적 범죄세력과 결합되어 주식시장이나 다른 금융시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범죄세력 등이 의도할 추가조작이나 금융혼란 등의 현실 경제에 혼란을 주어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거나 아니면 테러세력이 의도할 단지 서방 세력의 경제시스템을 마비 또는 붕괴시켜 공포를 조장할 목적이거나에 상관없이 지역 단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금융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고에 따르면 초국가적 규모의 마약 카르텔이나 테러세력 등은 그러한 의도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Mathers, 2004).

한편 다차원 안보위협의 결합은 같은 차원에서 지리적 범위의 확장을 통해 전지구적 위협으로 결합되기도 한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결합되

어 나타나는 글로벌 살라피 극단주의 테러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최근의 동향을 분석해 보면, 알 카에다는 범 지구적 규모에서 테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결합되어 있다(Hirschmann, 2001: 11-13). 여기서 알 카에다 핵심부는 지휘, 통제, 지원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를 조율하고 있으며 실제 테러 공격은 각 지역의 토착 테러세력이나 해당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자생 테러조직/네트워크 또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다(Reed, 2008).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최근의 카불 무장 공격과 그 외 아프간 도처에서의 동시적 무장 공격을 주도한 하카니 네트워크는 알 카에다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조직이며 최근의 공격역시 알 카에다와의 조율아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DIA 요원과의 인터뷰). 서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지역에서는 올 2월에 지역 테러 세력인 보코 하람에 의해 심각한 수준의 테러 공격이 이루어졌으며 이 지역에서 최근 들어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첩보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알카에다는 이슬람 극단주의 활동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코 하람과 알 카에다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알 카에다는 보코 하람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Зубов, 2012, p. 27; Крючков, 2012; Самохоткин, 2012). 서유럽(프랑스)의 경우 최근 프랑스에서 심각한 수준의 무장 테러 공격이 발생하였다. 이는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자생 테러세력에 의해 시도된 것이나 이 뒤에는 알 카에다의 프로파간다와 훈련, 지원, 지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After long standoff, French terror suspect killed during police raid, Foxnews, 2012). 이라크에서도 역시 최근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60여 명이 사상되었다. 이 활동역시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세력의 테러로 추정된다(60 killed in wave of terror bomb attacks across 12 cities in Iraq, NSNBC, 2012). 이란의 경우는 알 카에다와의 전통적인 적대관계에도 불구하고 영국 MI6의 첩보에 따르면 알카에다와 이란의 전략적 동맹 구축의 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Joscelyn, 2012). 전통적으로 적대 관계인 시아계열의 이란과 수니 계열의 알 카에다가 전략적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나 최근의 경향을 볼 때 반미, 반서방이라는 공통의 적을 대상으로 협력관계가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⁸⁾ 이러한 첩보가 정확하다면

8) 하지만 미 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 분석요원의 경우 이러한 관계가 보다 심화된 수준으로 발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이는 알 카에다와 이란이 갖는 본질적인 종교적 정치적 특성 때문에 그러하다고 평가된다.

이란의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이 알 카에다에 전달될 개연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테러의 수준을 핵 테러와 같은 심각한 수준으로 증폭시킬 위험성을 경고한다.

또한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복잡한 상황전개 역시 오늘날 안보의 문제가 다차원 안보위협의 결합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총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전개되어 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테러전쟁의 핵심사안 가운데 하나는 파슈툰 부족지역과 같은 아프간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개개인의 부족민들이 직면한 개인 차원의 폭력과 범죄적 위협으로부터 누가 얼마나 그들을 실효적으로 더 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이었다. 이는 누가 치안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는지의 경쟁이며 이를 둘러싸고 아프간 중앙정부와 탈레반 간의 정당성 경쟁이 펼쳐져 오고 있다(윤민우, 김은영, 2011; John Plasse와의 인터뷰). 이와 병행하여 탈레반과 아프간 중앙정부 간에 펼쳐진 지난 10년간의 테러와 내전은 아프간 주민들의 경제와 생존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고 이는 아프간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대안으로 마약밀거래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다시 아프간에서 마약 밀거래 조직의 부와 폭력적 능력을 증가시켜놓았으며 마약남용의 확대와 중앙 국가권력의 약화를 가져와 다시 아프간의 혼란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Cassara & Jorisch, 2009). 한편, 아프간에서의 탈레반 테러세력은 알 카에다와 파키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과 결합되어 전 세계적 규모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움직임에 합류되었고 이는 다시 인근 파키스탄으로 혼란이 넘쳐나가는 결과를 초래했다(Tellis, 2008). 더욱이 이러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테러와 범죄가 초래한 혼란에 더해 이 지역의 국제정치적 중요성과 아프가니스탄 내륙지역의 자원 확보 문제가 더해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대테러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 파키스탄, 이란, 인디아, 중국이 복잡한 국제정치적 게임을 전개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현재 정정불안이 어떤 식으로 끝나는가에 따라 이 지역에서 어떤 국가가 패권적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가 결정되고 이와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내륙에 묻힌 막대한 지하자원과 인근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각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지하자원을 누가 점유할 것인가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DIA 요원과의 인터뷰). 따라서 이러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최소한 법질서의 확보문제, 마약밀거래 문제, 테러문제, 인디아-파키스탄, 인디아-중국, 미국-이란 등의 국가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라는 정규전 문제, 자원과 관련된 경제문제, 국제정치적 주도권확보와 관련된 국제정치문제 등의 여러 차원에

걸친 안보 문제가 함께 어우러져 전개되는 복잡한 사안이 되고 있다.

결국 오늘날 한 특정 국가 또는 그 특정 국가 내에 거주하는 개개인의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안보의 위협은 앞서 언급한 여러 차원의 안보 위협들이 서로 복잡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총합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 안보의 문제를 대할 때는 이전의 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융합학제적인 방식으로 통합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안보의 문제는 다차원 안보위협 총합이 특정 국가와 겨레에게 어떤 도전을 안겨주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IV. 융합안보의 실험들

다차원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들은 이러한 종류의 위협이 복합적으로 닥쳐오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역시 융합된 방식으로 모색된다. 이를 여기서 융합안보의 실험들이라고 이름 붙였다. 대체로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서 시도하고 있는 융합안보의 실험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 관료기구가 작동하는 관료적, 분절적 안보기재 작동방식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다차원 안보위협이 복합적이고 국경이나 업무영역 또는 관할권의 범위를 넘어 무경계적으로 진행되고 시간적 간극이 거의 없이 실시간으로 전개되는데 비해 국가 안보기재가 작동하는 방식은 분절적이고 영역과 관할권의 제한을 엄격하게 받으며, 작동절차의 관료적 진행방식 때문에 느리게 대응하게 된다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이 때문에 대체로 회색지대에서 다가오는 여러 다차원 안보위협에 개개인의 사람들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낳으며 이와 연계되어 국가의 무기력성의 노출과 이에 따른 국가 정통성의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융합안보의 실험들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대한 하나의 응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미국 등 서방 각국에서 시도되는 융합안보의 실험들의 기본 패러다임은 대체로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기존 안보/치안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다차원 안보위협에 적합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분절적, 관료적 접근의 극복이다. 이는 통합적, 상호협력적, 네트워크적

대응방식으로의 전환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국가안보와 치안 등의 문제를 다루던 국가의 여러 폭력 기관들을 네트워크의 형태로 묶어서 서로간의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협력은 기관간의 관료적인 협력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나 관련 전문가들이 개인적인 네트워크 결합을 통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통합적 네트워크적 접근은 국가 기구간의 융합을 넘어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와 기업들의 융합을 포함하며 각국 간의 서로 다른 기관들과 조직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융합하여 이들이 실시간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합적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Terrorism Prevention Branch 1, 2차 회의 주요 논의 내용;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2). 이러한 사례들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의 경우 테러리스트나 마약 카르텔, 또는 무장반군들과의 교전에서 군 전투부대에 경찰 수사관이 함께 소속되어 범인체포와 수사상의 전문적 조언등과 같은 업무협조를 수행한다(콜롬비아 국가경찰 수사관과의 인터뷰). 또한 독일의 경우는 연방과 주의 경찰과 연방 정보기관, 검찰, 연방군, 출입국 관리국 등의 독일 내 주와 연방의 30여개 기관의 대표자가 매일 베를린의 오피스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며 서로간의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으로 협조하던지 아니면 정보기관과 연방과 주 경찰 간에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교류를 함으로서 협력하고 소통한다(Charles von Denkowski 인터뷰). 한편 유엔 마약 범죄국에서는 테러와 초국가 범죄, 사이버 안보위협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군, 검찰, 정보기관, 경찰, 민간 전문가, 각종 수사기관 등을 실시간으로 통합하기 위한 작업으로 온라인상에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여 관련 공무원과 수사관, 정보기관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Counter-Terrorism Learning Platform 웹사이트).⁹⁾

또 다른 핵심전략은 침투이다. 이러한 침투는 기존의 국가 권력이 미치지 어려운 새로운 공간에 대한 공권력의 적극적 투자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회색지대와 관련된 중요한 공간적 환경들로 사이버 공간과 자국 내에서 외국인 이주자 그룹에 의

9) 저자는 UNODC Counter-terrorism Learning Platform에 구축된 각국의 테러리즘 전문가 및 관련 담당자의 온라인 연락망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해 형성되는 문화적, 언어적 섬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다차원 안보위협을 증폭시키는 배양환경과 같이 기능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 침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예상되는 위협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능동적(pro-active)인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여러 서방 국가들은 이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정보활동과 병행하여 “범죄 전 수사(pre-crime investigation)”¹⁰⁾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며(Charles von Denkowski 인터뷰; 프랑스 검찰의 반테러와 국가안보 담당 검사와의 인터뷰) 정보수집분석활동에 검찰이 적극 개입하여 단순한 정보수집활동과 기소와 형 확정을 목표로 한 범죄 증거 수집활동 사이의 선택적 결정을 초기단계부터 결정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자는 제안도 유엔 마약 범죄국 회의에서 제기되었다(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Terrorism Prevention Branch에서 주최한 terrorists' use of internet for terrorist purpose에 관한 1, 2차 회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투는 주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용 가능한 공개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하거나(Institute for the Study of Violent Groups에서의 참여관찰; International Tactical Officers Training Association Seminar; Terrogece CEO와의 인터뷰) 여러 범죄나 테러 사이트나 웹 포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공간에 직접 참여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위협을 예측하는 방식(Terrogece CEO와의 인터뷰; 프랑스 검찰의 반테러와 국가안보 담당 검사와의 인터뷰) 또는 바이러스 감염방식을 통한 위협요소의 역추적·파악과 같은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첩보 수집 기법의 개발 등으로 이루어진다(Director of Cybercrime Research Institute와의 인터뷰). 또한 구글이나 라이코스, 익스큐, 핫봇 등의 각종 검색엔진을 통한 자료 탐색과 수집의 기법 개발과 함께 기존의 검색엔진으로 파악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웹사이트(invisible web)에 대한 검색 방법 개발과 적용을 통한 각종 정보 수집(Price & Sherman, 2001),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한 각종 안보위협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 등의 개발과 적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Skillicorn, 2008). 한편

10) 범죄 전 수사(pre-crime investigation)는 9.11테러 이후에 대두된 개념이다. 테러리즘, 특히 자살 테러리즘의 경우 일단 범죄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거나 사전차단을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시작되는 범죄에 대한 사후 대응적인 성격을 가진다. 범죄 전 수사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수사의 개념에서 벗어나 테러리즘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위해 수사를 실시한다는 사전 대응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가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국가의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게 부여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이버 상에서 비밀정보 수집이나 동향 감시를 하게끔 하거나(프랑스 검찰의 반테러와 국가안보 담당 검사와의 인터뷰)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민간 회사에게 이러한 사이버 상에서의 동향감시를 하게하고 민간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허가하고 민간보안회사를 통해 수집되고 분석된 이러한 결과를 정부가 공유하는 방식으로(Terrogence CEO와의 인터뷰) 접근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다차원 안보위협이 오는 주요한 공간 환경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투명성과 상황인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의미하며 사이버 공간으로의 국가 공권력의 힘의 투사를 나타낸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 밀집지역과 같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섬 지역 역시 다차원 안보위협의 주요한 배양환경(breeding ground)이 된다(Clarke & Newman, 2006). 이에 대한 침투는 문화적 언어적 침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독일의 사례가 모범적이다. 독일의 경우 이슬람 종교 전문가를 국가기관에서 특별 채용하여 이들을 통해 독일 내 이슬람 이주자 거주 밀집지역에 침투하여 실제로 모스크에서 어떠한 설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슬람 계 이주자와 그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고민을 갖고 어떠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이들 지역에서의 범죄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Charles von Denkowski와의 인터뷰). 한편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파슈툰 부족지역에서 이러한 부족들의 전통적 문화와 언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화적 언어적 민감성을 높인데 미국 정보력의 상당 부분이 투입된 사례도 문화적 언어적으로 고립된 특정 섬 지역에 대한 침투가 융합안보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DIA 요원과의 인터뷰; John Plasse와의 인터뷰). 이러한 사례들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고립되고 차단된 섬 지역이 다차원적 안보위협이 생성되고 진화하는 주요한 배양지역임을 잘 보여주며 때문에 융합안보에서 이들 고립된 지역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이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침투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투명성과 상황인식의 정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문적 영역에서도 새로이 대두되는 다차원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융합학제적 성격의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융합학제적 성격의 융합안보 전공들이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

는 주로 해외 주요국가에서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안보학(Security Studies)이나 형사사법학(Criminal Justice)이라는 전공 명칭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이러한 명칭들이 전통적인 의미를 갖는 것만은 아니며 전통적인 국가안보 또는 치안관련 문제에서 보다 확장되고 융합적인 성격을 갖는 의미로 변화하고 있다. 대체로 해외 주요국가의 대학들에서 이러한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대학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범죄와, 초국가 범죄, 사이버 안보 위협, 테러리즘, 분쟁과 저항도 전쟁, 정규전과 핵전쟁, 환경오염, 핵물질 거래, 위기관리, 소방과 재난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다차원 안보들을 함께 묶어서 통합적인 학위나 학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벨페어 센터, 뉴욕 시립 대학교 존 제이 형사사법 대학의 프로그램, 조지타운 대학교의 시큐리티 스터디 프로그램,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 조지 비토 형사사법 대학의 프로그램, 피츠버그 대학교의 GASPIA 프로그램, 뉴 헤이븐 대학교의 형사사법 시큐리티 스터디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스위스의 취리히 대학교의 시큐리티 스터디 프로그램과 독일 베를린 경제, 법 대학의 경찰 및 시큐리티 스터디 프로그램 등도 이와 유사한 학제간의 통합을 통한 융합안보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V. 맺음말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파괴를 하는 방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영향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경향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범죄나 테러, 전쟁과 같은 우리가 파괴를 하는 방식 역시 인간 활동의 일부로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창작을 하며,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생산의 양식과 일상생활의 삶의 방식과 같은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적인 사례들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철도의 건설과 같은 산업화와 기계화의 발전은 이를 통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여행을 하는 일상생활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삶의 양식과 문화를 중요하게 변화시키는 경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1차 대전의 양상이

11) 열거된 학교들의 안보관련 아카데미 프로그램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보여 주듯이 우리가 사람을 살해하고 파괴하는 전쟁이라는 파괴의 양식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조건 짓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도래와 일상화라는 증강 현실의 확대와 세계화로 인한 인간과 물품, 그리고 문화의 빠른 이동 등의 결과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일상의 혁명적인 변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범죄나 전쟁 등의 폭력 사용에서의 혁명적인 변환을 또한 의미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맛집을 찾고 친구와 교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신의 손에 들린 스마트 폰이 누군가에게는 공격 목표를 탐색하고 정찰하며 그러한 공격을 위해 공범자들과 서로 교신하는 공격용 무기로 이용될 수도 있음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 걸쳐 다른 차원에서 각각 존재해 왔던 여러 다양한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서 이러한 여러 다른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라는 형태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개개인의 안전과 국가적 단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도록 조건지우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 서로 얽혀 있으며 각각의 개별 안보 위협들의 총합을 함께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질 때 문제의 근원적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글에서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과 독일 등의 여러 서방 국가들의 노력들은 다차원 안보위협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념인 융합안보라는 개념은 이러한 국제기구나 다른 서방 국가들의 노력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제시된 것이다. 융합안보는 기존의 국가안보와 치안이라는 분절적 시각을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치안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정보기관, 군, 경찰, 검찰, 소방, 민간 경비 등의 각 영역들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오늘날 다차원 안보위협이 던지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응전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개념적 노력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준석 교수(박준석 교수와의 인터뷰)가 제시하고 있는 기존의 군, 정보기관, 경호, 경비, 경찰, 소방 등의 각 전공 영역을 통합하여 어떤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전공을 만들고자 하는 제안은 이러한 다차원 안보위협에 대한 올바른 시각에 기반을 둔 것이며 미국 등의 다른 나라의 학계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부합하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장 또는 폭력 사용의 환경 조건이 변화한 시점에서 새로운 안보위협을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합한 응전의 방식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다차원 안보위협에 대한 이해와 융합 안보의 개념과 여러 실천적 방안들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사회가 모색해 보아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이 글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 이 짧은 논문이 앞으로 다차원 안보 위협과 융합안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모색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윤민우(2010). 테러리즘의 이해와 국가안보, 인천, 한국: 진영사.
- 윤민우·김은영(2011). 아프가니스탄 지역 파슈툰 부족의 안보/치안 시스템: 국가권력과 탈레반 테러세력 사이의 안보/치안 서비스 경쟁. *한국경찰연구*, 10(3): 85-120.

2. 국외문헌

- Abbott, Philip K. (2004). Terrorist threat in the tri-border area: myth or reality? *Military Review*, September-October. 51-55.
- Bortner, Mark. (1996). *Cyberlaundering: Anonymous Digital Case and Money Laundering*. Presented as final paper requirement for Law & the Internet (LAW 745). A seminar at the University of Miami School of Law.
- Buzan, Barry and Hensen, Lene. (2009).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Cambridge: CUP.
- Cassara, J. and Jorisch, A. (2009). *The Afghan transit trade: How AF/PAK drug lords and terrorists are moving money and transferring valu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Redcell Intelligence Group.
- Clarke, Ronald V. and Newman, Graeme R. (2006). *Outsmarting the terrorists*. Westport, CT: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 CNN. (2007). Pirate attacks increase worldwide. [On-line] <http://www.cnn.com/2007/WORLD/africa/10/17/pirate.attacks.ap/index.html>. Newsarticle/CNN.com
- Cook, Colleen. (2008). *Mexico's drug cartels*. CRS Report for Congress. Order Code RL34215.
- CITTF(Counter-Terrorism Implementation Task Force). (2011). *Countering the use of the internet for terrorist purposes - Legal and technical aspects*. CITTF Working Group Compendium. CITTF Publication Series. New York: United Nations.
- Foxnews. (2012, March 22). After long standoff, French terror suspect killed during police raid. [On-line]<http://www.foxnews.com/world/2012/03/22/french-riot-police-set-off-explosions-as-standoff-between-authorities-and/#ixzz1udGHzynp>, News articles/Foxnews.com.
- Giustozzi, A. and Reuter, C. (2011). The Insurgents of the Afghan North. *Afghanistan Analysts Network Thematic Report*. [On-line] <http://www.aan-afghanistan.org/index.asp?id=1679>.

Academic journal.

- Ghosh, Aparisim. (2006, Nov. 6). The disappeared. *Time*. 44-48.
- Hastings, Justin V. (2009). Geographies of state failure and sophistication in maritime piracy hijackings. *Political Geography*, vol. 28: 213-223.
- Hirschmann, Kai. (2001). Terrorismus in neuen Dimensionen: Hintergründe und Schlussfolgerung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51: 7-15.
- Joscelyn, Thomas. (2012). British Intel Concerned About Iran-Al Qaeda. *The Weekly Standard*, 16 February. This article is a part of FDD(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 Weekly Review Reports.
- Mathers, Chris. (2004). *Crime school: Money laundering: True crime meets the world of business and finance*. Buffalo, NY: Firefly Books Inc.
- MSNBC. (2012, Feb. 23). 60 killed in wave of terror bomb attacks across 12 cities in Iraq.[On-line] http://theextinctionprotocol.wordpress.com/2012/02/23/60-killed-in-wave-of-terror-bomb-attacks-across-12-cities-in-iraq/News_articles/NSNBC.com
- Naim, Moises. (2005). *Illicit*. New York: Anchor Books.
- Price, Gary. and Sherman, Chris. (2001). *The Imisible Web: Uncovering Information Sources Search Engines Can't See*. Medford, NJ: Cyber Age Books.
- Rafiq, Adal. (2008, May 5). Fear piracy more than terrorism. *ICIS Chemical Business* 273, no. 18: 26-28.
- Reed, Donald J. (2008, Aug.). Beyond the War on Terror: Into the Fifth Generational of War and Conflict.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vol. 31, no. 8: 686-690.
- Schep, David. (2001, Feb. 2). Money Laundering in cyberspace. *BBC News*. <http://news.bbc.co.uk/2/hi/business/1149984.stm>.
- Skillicorn, David B. (2008). Knowledge Discovery for Counterterrorism and Law Enforcement.
- Tellis, Ashley. J. (2008). *Pakistan and the war on terror: Conflicted goals, compromised performance*. Washington D. 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2). *The Use of the Internet for Terrorist Purposes*. This unpublished draft was produced by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Terrorism Prevention Branch. Two Expert Group Meeting were held in Vienna, Austria, on October 2011 and February 2012 for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this draft. Dr. Minwoo Yun had attended both meeting as an expert.
- Wannenburg, Gail. (2003). Links between organized crime and al-Qaeda. *South Af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0, iss. 2: 1-14.
- Wyler, Liana Sun. and Nanto, Dick K. (2008). *North Korean Crime-for-Profit Activities*. CRS Report

for Congress, Order Code RL33885.

- Зубов, Николай. (2012, Января 30). У Всемирного Зла Новое Имя. *Коммерсантъ ВЛАСТЬ*, № 4, 958: 27.
- Крючков, Игорь. (2012). Север Мали может стать новым тренировочным лагерем Аль-Каиды.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Газета*, № 221, 6 апреля. http://mn.ru/world_africa/20120406/315048477.html.
- Самохоткин, Александр. (2012). Исламские террористы ставят под угрозу целостность Нигери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теракты в Нигерии взяла на себя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ая группировка Боко Харам.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Газета*, № 221, 7 апреля. <http://mn.ru/world/20111226/309336044.html>.

3. Personal Communications

2009년 5월 30일- 6월 10일, 이스라엘 사bak 요원 Rham과의 인터뷰

Rahm은 예명이다. 그는 이스라엘 군 정보기관인 사bak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 등에서 팔레스타인 및 이슬람 테러 세력에 관한 비밀 첩보 수집 임무를 담당했다. 윤민우는 The Fou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의 Academic Fellowship을 받아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및 기타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 정보부, 보안기관, 경찰, 교도소 등을 방문하여 현지의 대테러 활동을 참관하고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들과 세미나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인터뷰는 그 중 하나이다.

2009년 5월 30일- 6월 10일, Terrogence CEO와의 인터뷰

Terrogence는 이스라엘의 민간 회사로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운용하면서 주로 인터넷 상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나 동조자의 활동을 감시하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이스라엘 정부의 후원으로 이 민간 회사는 운용되고 있으며 자신들이 수집하고 분석한 intelligence 보고서를 이스라엘 정부나 민간 기업, 그리고 이를 필요로 하는 민간인들에게 판매한다. 윤민우는 이스라엘 방문 기간 중 이 회사 CEO의 회사 활동에 관한 소개를 들을 수 있었으며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2009년 5월 30일- 6월 10일, John P. Williams와의 인터뷰

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가 주최한 이스라엘 대테러 세미나 프로그램 과정 중에 테러네트워크와 이라크의 대테러 전쟁양상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인터뷰함.

그는 미 해병대 보병대령으로 이라크 전에 참전하였다. 이후 미 해군사관학교 중동 이슬람 연구센터의 Deputy Director를 역임하고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테러리즘과 insurgency warfare에 관해 강의한 대테러분야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다.

2011년 9월 21-23일, Director Cybercrime Research Institute 인터뷰

윤민우는 Asia-Pacific Regional Workshop on Fighting Cybercrime에 참석하여 Director Cybercrime Research Institute를 인터뷰 하였다.

2012년 2월 4-6일, 콜롬비아 국가경찰 수사관(Technology Investigations Group, Directorate of Criminal Investigation, National Police)과의 인터뷰

윤민우는 2012년 2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Terrorism Prevention Branch에서 주최한 전문가 그룹 회의 기간 중 콜롬비아 대표로 참석한 콜롬비아 국가경찰 수사관과 인터뷰 하였다.

2012년 2월 4-6일, 프랑스 검찰의 반테러와 국가안보 담당 검사(Deputy Prosecutor, Section C1-Anti-terrorism and breaches to National Security)과의 인터뷰

윤민우는 2012년 2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Terrorism Prevention Branch에서 주최한 전문가 그룹 회의 기간 중 프랑스 대표로 참석한 반테러와 국가안보 담당 검사와 인터뷰 하였다.

2012년 2월 16일, John Plasse와의 인터뷰

윤민우는 John Plasse를 직접 만나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 부족 지역의 상황과 이 지역에서의 아프간 정부군 및 경찰의 교육훈련과 제도 구축 문제, 그리고 관련된 테러리즘과 치안 상황 등의 문제에 관해 인터뷰 하였다. John Plasse는 미국 인디애나 주 테라훗 시의 시 경찰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동시에 인디애나 주 육군 주방위군 38보병사단의 중사로 28년간 복무하였다. 그는 미 헌병대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의 Kapisa, Parwan, Bamyán, 그리고 Panjshir 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 경찰의 훈련을 총괄지휘했다.

2012년 3월 22-23일, Charles von Denkowski와의 인터뷰

Charles von Denkowski는 현재 베를린 경제, 법 대학의 경찰 및 안보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베를린과 함부르크 경찰국에서 경찰관 및 수사관으로 약 20년간 근무해 왔으며 특히 테러리즘 수사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해왔다. 현재는 대학에서 테러리즘 수사와 pre-crime investigation, 그리고 안보분야 경찰활동 등을 강의하면서 독일 경찰과 보안 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는 9.11테러를 주도했던 함부르크 셸을 수사한 경력을 갖고 있다. 윤민우는 von Denkowski 교수와 독일의 대테러 활동과 정보수집, 분석 등의 주제에 대해 약 이틀간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했다.

2012년 4월 19일, 미 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 분석요원과의 인터뷰

윤민우는 미 DIA에서 실시한 AFPAK(Afghanistan-Pakistan) Foundation Course 교육 훈련에 참가하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의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DIA 분석요원과

지역의 대테러 전쟁과 국제안보 등의 문제에 관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4. 참여관찰(Field Research)

윤민우는 2005년 1월에서 2006년 7월까지 Institute for the Study of Violence Groups에서 Open Source Intelligence에 기초한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에 수석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주로 인터넷 등의 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작업으로 미국 법무부의 연구자금 지원으로 시작하여 미국 국방부의 자금지원으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는 미국의 테러리즘 관련 주요 데이터베이스의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15만 건 정도의 테러리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다양한 테러리즘 관련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해오고 있다.

윤민우는 2009년 5월 30일- 6월 10일 간 The Fou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의 Academic Fellowship을 받아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및 기타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 정보부, 보안기관, 경찰, 교도소 등을 방문하여 현지의 대테러 활동을 참관하고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들, 그리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세 명의 테러리스트들과 세미나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윤민우는 2011년 10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Terrorism Prevention Branch에서 주최한 전문가 그룹 회의에 테러리즘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다. 회의의 주제는 “*The Use of the Internet for Terrorist Purposes*”였으며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을 포함한 24국 대표들과 Council of Europe, OSCE, Eurojust 등의 기관 대표들과 민간 보안회사 대표, 그리고 UNODC TPB 임원들이 참석했다.

윤민우는 2012년 2월 16-17일 International Tactical Officers Training Association이 실시한 대테러 전술 훈련과정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윤민우는 2012년 4월 이후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에서 운용하는 Counter-terrorism Learning Platform에 멤버로 가입하여 각국의 대테러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자문을 주고받는 등의 UNODC에서 선별적 가입을 통해 운용하는 대테러 관련 Social Network Service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https://ctlp.unodc.org/login/index.php>

【Abstract】

Multi-dimensional Security Threats and Holistic Security

- Understanding of fusion-phenomenon of national security and criminal justice in post-modern society -

Yun, Min-Woo
Kim, Eun-Young

Today, the emergence of cyberspace and advancement of globalization caused not only the transformation of our productive and conventional life but also the revolutionary transition of use of destructive violence such as crime and warfare. This transition of environmental condition connects various security threats which separately existed in individual, local, national, and global levels in the past, and transformed the mechanical sum of all levels of security threats into the organic sum of multi-dimensional security threats.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sum of multi-dimensional security threats is caused by the interconnectivity of various different levels of security threats and the integrate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is essential to properly understand the fundamental existence of today's security problem and the reality of fear that we face today. The holistic security, the concept proposed here, is to suggest the mode of networked response to multi-dimensional security threats. The holistic security is suggested to overcome the conventional divisional approach based on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labor" and bureaucratic principles, which means more concretely that national security and criminal justice are divided and intelligence, military, police, prosecution, fire-fighting, private security, and etc. are strictly separated into its own expertise and turf.

Also, this article introduces integrated security approaches tri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major countries overseas with the respect of the holistic security. The author have spent some substantial experience of participant observation, meetings, seminar, conference, and expert interviews regarding the issues discussed in the article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Russia, Austria, Germany, Canada, Mexico, Israel, and Uzbekistan for the last ten years.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on various levels of security threats and security approaches introduced in this paper is obtained from such opportunities.

Key words : Multi-dimensional security threats, Holistic security, Security, Criminal justice, Terrorism, Crime, Warfare